

미래산업, 한국농업의 비전

품질·서비스 등 국제경쟁력 요소 다양, 획기적 인식전환 필요
농업·농촌, '할만한 산업·살만한 곳' 공감대 확산 위해 매진해야

지 금부터 50년 전, 6. 25동란 때의 일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패퇴하던 북한군을 추격하여 두만강 국경근방까지 진격했던 UN군은 갑자기 밀어닥친 중공군의 인해전술(人海戰術)에 속절없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후퇴하던 한 중군기자가 길옆에 쓰러져 있는 어린 미군 병사를 발견했다. “중공군이 오고 있으니 빨리 일어나라” 기자가 아무리 재촉해도 미군 병사는 손을 내저었다. 할 수 없이 기자는 배낭 속에 있는 먹거리라도 줄 요량으로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 고 물었다. 어린 병사가 고개를 들면서 힘없이 말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시오”

내일, 따뜻한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를 누릴 수 있는 내일, 그 내일이 주어진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후퇴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내일이 없다면 차라리 오늘 여기서 죽겠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쓰러져있는 미군 병사의 사진과 함께 “Give me tomorrow”란 제목으로 Life誌에 실려서 나중에 폴리처상을 수상하게 된다.

잠식시장, 나라밖서 찾아와야

오늘날 한국농업은 시장개방의 충격에 더해 심각한 경제불황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값싼 해외 농산물의 공세에 밀려서 국내시장의 상당부분을 빼앗기고 있으며 개방 폭의 확대에 따라서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쌀을 포함한 전 농산물의 공급 과잉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가 다투어 떠나버린 농촌은 이미 아기울음소리마저 그친 적막강산이 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농업이 처하고 있는 위기 국면을 치유하기 위하여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비롯한 수많은 정책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책처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언 밭에 오줌 누기” 식 정책으로 한국농업이 되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국농업의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친 패배감이 치유되지 않고는 한국농업이 직면한 위기 국면의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수 천년동안 우리 민족을 부양해온 한국농업은 이대로 사그라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농업의 내일은 있는가?

한국농업의 위기는 우리 농산물의 팔데(市場)가 점차 줄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값싼 수입농산물의 공세에 밀려서 시장점유율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산농산물의 시장은 과연 얼마나 줄어들 것이고 국내농업 생산은 어떤 규모로 위축될 것인가?

현재 한국농산물의 영양열량(cal)자급률을 50% 수준이라 치면 우리 농산물은 4천6백만인 전 국민의 절반을 부양하는 셈이므로 2천3백만명을 100% 먹여 살리는 시장규모로 한국농업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장규모가 수입농산물에 잠식당하면서 앞으로 2천만명에서 1천5백만명 수준으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한국농업에 대한 패배감의 실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시장을 야금야금 잠식당하면서 우리 한국농업의 위축을 속절없이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나라 안에서 잃고 있는 시장을 나라 밖에서 찾아와야 한다.

수출기반 확충 · 신 농촌소득원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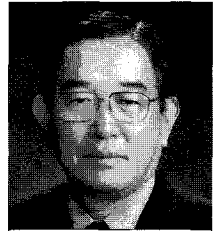
2004년도 우리나라는 100만 달러어치의 해외농산물을 수입하고 대신에 20만 달러어치의 국내농산물을 수출하였다. 비록 몇 가지 품목에 치우친 수출실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농산물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지식(Know how), 그리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수출실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 농산물 값보다 평균 2.5배가량 비싼 일본 시장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중국의 고소득층도 유망한 잠재수출시장이다.

만약 일본 국민(1억2천만명)과 중국의 고소득층(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인구 8천만명)의 5% 인구만 우리 농산물의 고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1천만명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은 해외농산물에 내어주는 대신에 값비싼 고급 농산물의 시장을 해외에서 확보해 가는 전략이야말로 땅값 비싸고 인건비 비싼 한국농업이 지향하고 이뤄내야 할 목표가 돼야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로「윤사마」 「대장금」으로 상징되는 한류열풍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이를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절호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수출 상품 개발과 조직적인 홍보, 품질과 안전성 보증,



성진근
충북대학교 교수

**바야흐로 반도체를 대신하여 앞으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이
신물질, 기능성물질을 개발하는 생명공학적
바이오 농업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 농업기술을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접목시키는 일이야
말로 한국농업을 미래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수출물량의 출하량과 시기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수출상품포장출하센터 그리고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등 수출기반도 빠짐없이 갖추어 나가야 한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웰빙(Well Being)추세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전환시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웰빙이란 뭔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와 환경을 즐기면서 살자는 것이다. 농촌의 쾌적성(Amenity)과 농촌다움(Rurality)을 고품질의 농산물과 결합시켜서 상품화하는 것에서 전혀 새로운 농촌소득원이 창출되어 점차 커지고 있다.

2003년 현재 소위 녹색관광(Green Tourism)의 생산소득액이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경우 농업생산소득액의 두배로,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대등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지 않은가?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국민의 여가행태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를 웰빙 추세와 결합시켜서 농촌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농업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

‘내일’에 대한 확신 가져야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생산되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의 보관과 수송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착된 수입농산물은 값이 싼 반면에 건강에의 적합성이나 식품의 안전성이란 측면에서는 우리 농산물보다 훨씬 뒤쳐진다. 그러므로 한국농업 생산 질서는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측면에서도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생산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확 후 기술(Post harvest tech.)과 차별적인 유통경로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입농산물 값보다 평균 10배 이상 비싼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食의 안전」이란 구호를 내걸고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웃 일본 농업계의 움직임을 「강 건너 불 보듯」해서야 되겠는가?

바야흐로 반도체를 대신하여 앞으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이 신물질, 기능성물질을 개발하는 생명공학적 바이오 농업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다. 녹색혁명을 성공시켜서 절대 빈곤의 터널을 벗어나게 했던 우리 농업기술인력의 무한한 능력을 여기에 집중시킨다면, 한국농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정말 허황한 꿈에 불과하겠는가?

바이오 농업기술을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접목시키는 일이야말로 한국농업을 미래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한국농업은 미래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계곡과 강, 그리고 비옥한 들판을 갖춘 금수강산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좁은 농토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야말로 우리 농업에 주어진 비교우위 조건이다.

더구나 드림통을 두드려 펴서 자동차를 조립했던 기술로 당당히 세계시장을 누비는 자동차 수출대국을 일구어낸 우리의 인력자원 역시 확실한 비교우위조건이다.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0년간의 압축고도성장 덕분에 인건비가 비싸진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싼 생산요소(땅, 사람)를 고용해서 생산된 우리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맛과 안전성 등 품질경쟁력이나 서비스 경쟁력에 의해서도 그 우위성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교우위조건을 극대화함으로써 비교열위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는 비전의 부족함과 함께 농업계의 도전의지가 부족함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근본원인이라는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한국농업의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오늘의 위기를 추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농업을 「할만한 산업」으로, 농촌을 「살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는 일,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착실히 전진하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Y